

왜 이스라엘인가? 2가지 불굴의 이유

— Elijah Choi 선교사 // 글로벌 이사야 62장 금식성회 // YouTube: 포러너 프로젝트

전제

1. 이번 '이사야 62장 금식 성회(2023년 5월 7일—28일)'를 통해, 단순히 이스라엘에 대한 올바른 신학적 견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견딜 수 없는 주님 간절한 심정이 교회에게 임파테이션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 이스라엘을 위해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고백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롬. 9:1-3). 바울의 고통은 단순히 조국에 대한 애국심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8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니라" (빌립보서 1:8, NKRV)

2. **"광야에 여호와와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외치는 목소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에게 이식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3-5절을 소개하기 전에 1-2절을 먼저 언급하는 이유는 선두주자가 누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메시지는 바로 **"시온을 위로하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모든 선두주자의 임무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2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로 시온을 위로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달도록(부드럽게)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여기서 **"마음에 달도록(leb)"**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호세아서에서 사용됩니다 (호 2:14-16). 호세아 선지자의 부르심은 단순히 혼인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고멜이라는 창녀를 끝까지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호 3:1). 이스라엘을 향해 외치는 선두주자의 태도, 자세, 그리고 메시지의 톤은 반드시 이와 같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주님의 애타는 마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메신저는 지식의 소매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친구입니다.

서론

1.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주제를 다루기에 가장 먼저 답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인가? 대체 이스라엘이 '나'랑 무슨 상관인가?"**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이스라엘을 알고 모르는 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모른다 하더라도 현실을 살아가는 데 큰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2. 로마서는 **'이스라엘이 나랑 무슨 상관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직접적인 답변입니다. 이 편지에서 그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지혜"**를 변호하면서(롬 11:33-36) 무지함(롬 11:18, 25)과 무관심(롬 12:1-2)에 대해 경고합니다 (11:20-22). 그러면서 교회를 향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라고 설득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찬송이 될 수 있습니까?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롬 12:2).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에 관해 생각을 바꾸라는 말일까요? 바울의 의도는 구체적입니다. 그것이 확실한 이유는 1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이 접속사는 로마서 9-11장까지 바울이 설교한 탄탄한 논리와 연결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1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나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2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5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선택을 받아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25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른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untill)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in part) 눈멀게 된다는 것이라. 26 그리하여(And so) 모든(all)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27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에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29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로마서 11:1-29, NKJV 성경)

3.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가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어떻게 기초를 쌓는지입니다. 그는 로마서 1-8장까지 영광스러운 은혜의 복음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길이를 설교하며, 이것을 불굴의 기반으로 삼습니다.

"30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31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3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8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29-39, NKRV)

4. 이것이 로마서 9-11장에서 사도 바울이 펼치는 이스라엘 신학의 모퉁이돌입니다. **"왜 이스라엘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논리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불굴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1: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에

1.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절대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며 많은 물도 그 사랑의 불길을 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가 8:6-7). 즉, 이유는 그 무엇도 가로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갈망과 기쁨에 근거합니다 (사 43:1, 4; 62:1-7; 렘 31:3, 20).

"3 ...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기에 내가 인애로 너를 이끌었다.... 20 에브라임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닌가? 내게 기쁨을 주는 자식이 아닌가? 내가 그를 자주 책망해 말하지만 아직도 그를 기억한다. 그러므로 내 창자가 그로 인해 고통을 받으니 내가 분명 그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예레미야 31:3, 20, 우리말 성경)

2. 쉽게 말해, 이스라엘의 스토리는 이스라엘의 실적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신 7:7, 사 53:6, 64:6-7, 롬 3:10-12, 23). 오직 하나님 안에 견딜 수 없는 그리고 맹렬히 솟구치는 갈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애초 이스라엘의 충실성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충실성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참조. 창 15:12, 17-21).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은혜의 선택입니다 (엡 2:4-9).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주는 항상 신실하시나니 이는 그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딤후 2:13).

"3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습니까? 4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해도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로마서 3:3-4, 우리말 성경)

3. 물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죄를 가볍게 여기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참조. 사 10:12, 단 9:24). 주님은 당신 자신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불순종 할때 반드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같은 문맥에서(예레미야 30-31장)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십니다.

"11 여호와와의 말이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to save).... 그러나 (But) 내가 너를 정의로운(적당한) 강도로 훈계하고 네가 아예 처벌을 면하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 30:11, ESV 성경)

4. 그럼에도, 두렵고 떨리는 징계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간절히 **"사모"**(아가. 7:10)하십니다. 비록 패역한 백성이지만, **"여전히"**(렘. 31:20) 주님께 **"(소중히) 사랑하는 자(the dearly Beloved of My soul)"** 입니다 (참고. 렘. 12:7). 따라서 시온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는 심판을 통해 그들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목표는 결국 이 백성을 당신의 특별하고 소중한 보화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4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 주실 때 심판의 영광 불의 영으로 예루살렘의 피를 닦아 내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사야 4:4, 우리말 성경)

"17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말라기 3:17, NKRV)

5.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절대 버림받지 않을 것이며 (사 41:9)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 44:21). 하나님의 언약은 변질되지 않으며 (민 23:19)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 40:8).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결코 회개하는 법이 없습니다"**(롬 11:29).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설명하신 대로입니다.

"1 그러나 야곱아...내가 네 이름을 불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You are Mine) 2 네가 바다를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네가 강을 건널 때 휩쓸려 가지 않을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갈 때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네 몸을 태우지 못할 것이다.... 4 (왜냐하면) 네가 내 눈에 소중하고 귀한 만큼, 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사야 43:1-4, 우리말 성경)"

6. 이러한 주님의 답변은 그 문맥을 고려할 때 어떤 면에서 충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방금전 이스라엘의 고집스러운 반역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 42:23-25). 그러나 주님은 당신 안에 들끓는 인애를 이기지 못하셔서 **"그러나"**라는 진리로 개입하십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2:1-3절에서 설

교하는 것처럼,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니 **(그러나)**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 **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때문에** 허물어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엡 2:1-5). 우리는 다시 한번 자비로 불타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7 내 백성이 내게서 등을 돌리기로 작정했다.... 8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하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떻게 너를 넘겨주겠느냐?... 내 마음이 들끓어서 내 공혈이 뜨겁게 솟아오른다.” (호세아 11:7-8, ESV 성경)

2: 예수님의 존귀함 때문에

1. 그러나 이 한량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더 견고한 반석 위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주님의 불변한 헌신입니다. 이것을 한 문구로 압축하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쉽게 말해, 이스라엘은 근본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통로입니다. 이 스토리의 목적은 결국 열방에 하나님의 독보적인 아름다움과 위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21 그러나...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22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23 ...내가 그들(열방)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변호하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 36:21-23, ESV 성경)

2. **“너를 위함이 아니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운명과 하나님의 영광이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너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변호하리니 (vindicate)”라는 표현을 주목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결국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의 극상의 가치를 공개적으로 변호하는 대극장입니다. 이 스토리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22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사무엘상 12:22)

3. 이스라엘이 중요한 이유는 그 자체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대하시고(시. 145:3), 고상하시며(빌. 3:8), 아름다우시고(시. 45:2; 아가. 5:10), 영광스러우며(사. 4:2), 그리고 존귀하시기(계. 5:12)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찬송과 명성, 그 이름과 영광이 이 스토리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상에 여호와께서 누구시며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증거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27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28 내 성소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있게 될 때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을 민족들은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 37:27-28, 우리말 성경)

4.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도 (신. 7:7; 사. 43:10, 21), 출애굽하신 이유도 (출. 6:7; 7:5; 사. 63:12-14), 광야에서 그들을 멸하지 않으신 이유도 (민. 14:20-21; 시. 106:6-8; 겔. 20:13-14), 그러나 동시에 그들의 죄악을 무시하지 않고 징계하시는 이유도 (겔. 12:15; 33:29), 하지만 끝내 저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하시는 이유도 (시. 102:13-15; 사. 44:23; 48:9-11; 겔 39:25)¹ 전부 예수님 때문

¹ 그리고 이 스토리가 그저 영적인 회복으로 끝나지 않고 물질적 회복으로 이어주는 이유도—끝내 약속하신 땅을 영원한 유업으로 주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 60:21; 겔. 36:33-36).

입니다. 결국 이 스토리의 결말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세상에 증거할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할 때, 그는 다른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걸고 넘어집니다.

"1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12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13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15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16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고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17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20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21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이라**" (민수기 14:11-21)

5.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제안한 대체 신학을 거부하신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참조. 창 17:17-19).

"17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 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 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18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19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NO)**..." (창세기 17:17-19, NKRV)

6. 그러므로,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드러낼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질'은 결국 이스라엘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견해는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할 수도 있고, 반대로 주님의 명성을 업신여기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뼈 속에 사무친 불처럼

1. 본래 질문으로 돌아와 보면, **"이스라엘이 나랑 무슨 상관인가?"**라는 질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랑 무슨 상관인가? 복음이 나랑 무슨 상관인가? 선교가 나랑 무슨 상관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랑 무슨 상관인가?'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주제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열방의 모든 민족과 백성과 나라와 방언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양께서 그 고귀한 희생의 마땅한 상급을 취하실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위해 **"선포하고 노래하고 중보해야"** 합니다 (사 62:6-7; 렘 31:7). 이 모든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23 ...내가 그들(열방)의 목전에서 **너희(이스라엘)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변호하리니...**" (에스겔 36:21-23, ESV 성경)

2.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우리 뼈속에 사무친 불처럼 인쳐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이 찬송이 되는 그날까지"** (사 62:7) 우리 모두가 잠잠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 그러나 "내가 여호와를 언급하지 **않고** 더 이상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여호와와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불, 곧 내 뼈속에 갇힌 불** 같습니다. 내가 그것을 **견디는 데 지쳐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20:9, 우리말 성경)